

SSPECOS · 일곱 가지 황금키

짧은 요청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로 다듬는 일곱 가지 점검 기준입니다. 초안을 분석한 뒤 부족한 원칙을 자동 보완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SSPECOS를 쓰는 순서

1) 초안을 입력하거나 캡처의 글자를 추출합니다. '대화로 프롬프트 초안 생성'에서 일곱 질문에 답하고 초안 입력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황금키 생성 후 일곱 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족한 항목의 '자동 보완' 또는 '직접 작성·편집'을 선택합니다. 4) 최종 프롬프트를 고치고 복사하거나 저장합니다.

진단은 초안에 드러난 표현을 기준으로 한 빠른 점검입니다. '충족'이 곧 내용의 정확성이나 결과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목적·대상·자료·제약을 더 구체적으로 넣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S — Specificity and Clarity | 명확성과 구체성

무엇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만들지 밝힙니다. '마케팅 자료 작성'보다 '신규 고객에게 보낼 1페이지 제품 소개문을 작성'이 더 분명합니다.

목표, 독자, 결과물의 범위가 빠졌다면 짧은 확인 질문을 요청하거나 합리적인 가정을 명시하게 합니다.

S — Structure and Delimiters | 구조화와 구분자

요청, 배경, 제약, 참고 자료, 출력 형식을 제목이나 구분자로 나눕니다. 첨부 문서의 내용과 AI에 내리는 지시를 섞지 않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 배경', '## 참고 자료', '## 요청', '## 출력 형식'처럼 영역을 구분합니다.

P — Persona and Role | 역할과 페르소나

해당 업무에 맞는 관점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제안서는 '제조업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는 제안 담당자', 수업 자료는 '초보 학습자를 가르치는 강사' 관점이 유용합니다.

역할은 표현 수준과 검토 관점을 정할 뿐, 없는 전문 자격이나 실제 조사 경험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 — Examples | 예시 제공

좋은 문장, 표, 목차, 톤의 예시를 제공하면 결과의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용도로 쓰고 사실이나 출처를 임의로 늘리지 않게 합니다.

예: '각 항목을 현황 → 문제 → 제안 → 기대 효과 순서로 작성'처럼 기대 흐름을 제시합니다.

C — Context | 맥락 제공

사용 목적, 독자, 업계, 이미 확인된 사실, 일정, 예산, 이전 결정 사항을 제공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추정으로 메우기보다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동일한 ‘보고서’라도 임원 결재용인지 현장 점검용인지에 따라 깊이와 용어가 달라집니다.

O — Output Format | 출력 형식

결과물의 형태와 길이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페이지 요약, 5개 슬라이드의 개요, 마크다운 표, 이메일 본문, 결재용 기획서처럼 실제 사용할 형식을 적습니다.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목과 소제목, 짧은 목록으로 읽기 쉽게 구성하도록 요청합니다.

S — Step-by-step Reasoning | 단계적 점검

목표 확인 → 내용 구성 → 정확성·누락·활용 가능성 점검 순서로 작업을 지시합니다. 내부 사고의 상세 기록을 요구하기보다 결과와 검증 가능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완성 후에는 원래 요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숫자와 출처를 지어내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적용 예시

초안: ‘머신비전 제안서를 작성해 줘.’

보완: ‘당신은 제조업 기술 제안 담당자입니다. 수작업 검사에서 불량 누락을 줄이려는 고객에게 제안서를 작성하세요. ##

배경: 검사 대상과 공정 속도는 제공 자료만 사용. ## 출력: 문제 정의, 제안 구성, 도입 단계, 검증 지표, 확인 필요 사항.

비용이나 개선율이 없으면 추정 수치를 만들지 마세요.’

문서 유형별 적용 팁

마케팅 자료: 고객군과 채널을 구체화하고 브랜드 톤, 메시지, 행동 유도, 성과 지표를 출력 형식에 넣습니다.

기획서: 결재자, 추진 배경, 목적, 범위, 일정, 예산의 확정 여부를 맥락과 제약으로 명시합니다.

제안서: 상대의 문제와 차별화 근거를 구분하고, 실행 범위와 검증 가능한 기대 효과를 요청합니다.

보고서: 조사 질문, 사용 자료, 사실과 해석의 구분, 한계, 의사결정을 위한 권고안을 지정합니다.

마지막 확인

생성된 프롬프트가 실제 요청의 의미를 바꾸지 않았는지 읽어 보세요. 모르는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졌다면 삭제하거나 ‘확인 필요’로 바꿉니다.

최종 프롬프트 창에서 직접 고친 내용은 복사·저장에 반영됩니다. 이전 작업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JSON 파일로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 생성기의 SSPECOS 기준

<https://prompt.hovision.co.kr>